

제 4차 무용경연대회 (독무부분) 수상자



나조 1등 도카이지부
장영애 《줄채방울춤》



가조 금상 오사까지부
현유희 《조개춤》

가조 금상 효고지부
문유미 《도라지》



제 3차 무용경연대회 나조 중무부분 1등 문예동오사까지부 《소고놀이》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

제 5차 무용경연대회



제 3차 무용경연대회 나조 군무부분 1등 문예동효고지부 《봄꽃》

2007.11.23 (金)
東京朝鮮文化会館

인사



무용부장 이수향

사랑하는 무용부 맹원동무들!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민족무용을 사랑하고 식을줄 모르는 정열로 구슬땀을 흘리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포함합니다.

재일동포사회를 둘러싼 정세가 계속 어려운 속에서도 민족무용을 통해 일본땅 방방곡곡에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광범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는 우리 맹원들은 동포사회의 귀중한 존재이며 보배입니다.

2002년 6월에 무용부맹원들의 기량향상과 뉴대를 목적으로 시작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는 올해로 제5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의 기량제고는 지역의 무용운동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동일뿐만아니라 올해 가져진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제17차 대회에서 제기된 민족권을 확대하고, 조국통일과 조일친선에 이바지하는 창작공연사업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도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도 일상시 편마해온 기술기량과 일심단결의 뜨거운 마음을 남김없이 무대에서 발휘함으로써 호상간 공부하며 매 지역 동무들간의 교류를 깊이는 진정한 배움의 마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박한 경연대회의 성과적개최를 위해 도와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전체 무용부맹원동무들에게 깊은 사의를 포함합니다.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무용부

경연순서

기본동작부분 (11:30 시작예정)

- | | | |
|---------------|----------------------------|-----------|
| 1. 수건춤 기본 1동작 | ----- | 문예동효고지부 |
| | 서명희 서미래 정은주
리유희 김지화 심애실 | |
| 2. 수건춤 기본 1동작 | ----- | 문예동도꼬지부 |
| | 원정란 김명나
손흥미 리명향 리경화 | |
| 3. 수건춤 기본 1동작 | ----- | 문예동도까이지부 |
| | 김리에 김재숙 오미화 | |
| 4. 수건춤 기본 1동작 | ----- | 문예동오사까지부 |
| | 박미화 최길자
김애리 리남경 전경향 | |
| 5. 수건춤 기본 1동작 | ----- | 문예동니시도꼬지부 |
| | 김령나 정진 | |

군무부분 (12:00 시작예정)

-가 조-

- | | | |
|-----------|--|---------|
| 1. 채방울춤 | ----- | 문예동도꼬지부 |
| | 김영애 흥귀혜 정민수 정영선 김실가
신향애 장령실 리경화 박경화 | 9명 |
| 2. 고구려장고춤 | ----- | 문예동효고지부 |
| | 김경애 리지령 김선옥 문유미 김향자
황화미 황문희 리명복 | 8명 |
| 3. 방울춤 | ----- | 문예동효고지부 |
| | 김선옥 문유미 김향자 황화미
황문희 리명복 | 6명 |
| 4. 도고춤 | ----- | 문예동도꼬지부 |
| | 정민수 흥귀혜 김영애 신향애 장령실
송직영 량효강 박경화 | 8명 |

경연순서

-나 조-

5. 명승의 나라 ----- 문예동효고지부
 김지화 정은주 심애실 리유희 6명
 서명희 서미래

※군무경연부문 3,4,5번은 출연자가 겸치는것과 관련하여 중무경연이 끝난 다음에 경연을 하겠습니다.

중무부문 (13:00 시작예정)

-가 조-

1. 방울춤 ----- 문예동도교지부
 3인무 : 송직영 량효강 정혜순

2. 모란봉 ----- 문예동오사까지부
 5인무 : 김순혜 김리미 리화미 현유희 김영미

3. 장고춤 ----- 문예동가나가와지부
 3인무 : 김옥수 김영숙 리미리

-나 조-

4. 조국산천 좋을씨구 ----- 문예동도교지부
 5인무 : 리명향 손홍미 원정란 리경화 김명나

5. 우리 장단이 좋아 ----- 문예동효고지부
 3인무 : 리유희 정은주 서미래

6. 우리 장단이 좋아 ----- 문예동도까지부
 3인무 : 김재숙 김리에 오미화

7. 산천가 ----- 문예동오사까지부
 5인무 : 최길자 김애리 전경향 리남경 박미화

경연순서

독무부문 (14:40 시작예정)

-가 조-

1. 북춤 ----- 문예동도까지부 허화월

2. 조개춤 ----- 문예동니시도교지부 정진

3. 바라춤 ----- 문예동도까지부 정유의

4. 북춤 -----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순혜

-나 조-

5. 짧은 무희 ----- 문예동니시도교지부 김령나

6. 천안삼거리 ----- 문예동효고지부 심애실

7. 소고춤 ----- 문예동효고지부 리유희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졸업생들의 작품발표 (15:50 시작예정)

1. 록화상영
 《타향무》 안무 : 윤마유 (문예동도까지부)
 《못 다 핀 꽃》 안무 : 송영애 (문예동오사까지부)

2. 무용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리남경 (문예동오사까지부)
 《북춤》 안청미 (문예동도까지부)
 《장고춤》 리정화 (문예동도교지부)

심사원소개 및 심사방법과 내용

심사위원장 **임수향** (문예동중앙 무용부장)

특별심사원 **김상일** (총련중앙민족권위원회 부위원장)

심사원 **김영란** (김영란조선무용연구소 소장)

김유열 (김유열조선무용연구소 소장)

김청자 (문예동도끼이지부 무용부장)

리미남 (리미남무용연구회 회장, 인민배우)

리송영 (문예동오사까지부 무용부장)

리혜인 (문예동도끼이지부 부위원장)

박정순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부학부장, 공훈예술가)

임추자 (임추자민족무용단 대표, 인민배우)

현계광 (현계광조선무용연구소 소장, 공훈예술가)

(자모순)

■ 심사방법 :

심사는 10점법으로 소수점 1단위까지로 하며 심사원 11명중 중간 점수 7명분을 합하여 7로 나눈 수를 점수로 한다.

- 기성작품과 창작작품으로 나누지 않고 경연한다.

- 《가》조, 《나》조로 나누어 경연하며 시상한다.

※ 《나》조 독무경연부문에서는 본 경연의 평가와 함께 문예동중앙의 지도 밑에 경연입상자들을 대상으로 2.16경연 추천사업을 진행한다.

■ 심사내용 :

예술성 (기량과 형상) 에 대하여 평가한다.

- 조선무용의 기법과 춤가락의 정확성, 장단의 고유한 맛과 호흡, 흥취를 정확히 표현했는가를 평가한다.

- 작품이 요구하는 사상예술적내용과 감정이 충분히 형상되었는가를 평가한다.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졸업생들 (구 평양음악무용대학)

■ 윤선아 (문예동 가극단지부)

2002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입학

2004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졸업

■ 리명향 (문예동 도꼬지부)

2002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입학

2005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졸업

■ 윤마유 (문예동 도끼이지부)

2002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안무과 입학

2006년 10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안무과 졸업

■ 리남경 (문예동 오사까지부)

2004년 5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입학

2007년 6월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무용과 졸업

■ 안침미 (문예동 도끼이지부)

2005년 5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입학

2007년 10월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무용과 졸업

■ 리정화 (문예동 도꼬지부)

2005년 5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무용과 입학

2007년 10월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무용과 졸업

■ 송영애 (문예동 오사까지부)

2003년 5월 평양음악무용대학 통신학부 안무과 입학

2007년 11월 평양음악무용학원 통신학부 안무과 졸업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무용경연대회

제1차 성적 (2002년 6월 22일 산파루아라가와)

독무부문	1등 《소고춤》	문예동후쿠오까지부 리순화
	2등 《나의 초소》	문예동도쿄지부 리명향
	3등 《장고춤》	문예동도카이지부 윤마유
중무부문	1등 《소고춤》	문예동효고지부
	2등 《금수강산 줄을씨구》	문예동오사까지부
	3등 《소고춤》	문예동도쿄지부
군무부문	1등 《조국의 진달래》	문예동도쿄지부
	2등 《채방울춤》	문예동도카이지부
	3등 《채방울춤》	문예동효고지부
단체상		문예동도쿄지부
후원회상	군무 《경복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제2차 성적 (독무) (2003년 7월 13일 쓰르미회관)

《가》 조	금상 《도라지》	문예동도쿄지부 김선혜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은상	《조개춤》	문예동도쿄지부 리옥민
	《장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동상	《조개춤》	문예동니시도쿄지부 정진
	《소고춤》	문예동가나가와지부 장애림
《나》 조	1등 《복춤》	문예동도카이지부 안청미
	2등 《나의 초소》	문예동도카이지부 리미순
	3등 《조개춤》	문예동도쿄지부 손흥미
가나가와녀맹본부상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심사위원회상		문예동도카이지부

제3차 성적 (2004년 6월 26일 오사까부청소년회관)

《가》 조	독무부문 금상 《복춤》	문예동도카이지부 정유의
	금상 《장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은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쿄지부 정진

중무부문	금상 《우리의 금수강산》	문예동오사까지부
군무부문	금상 《아박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은상 《모란봉》	문예동교토지부
《나》 조	독무부문 1등 《바라춤》	문예동효고지부 황문희
	2등 《소고춤》	문예동도쿄지부 리경화
	3등 《도라지》	문예동도쿄지부 리정화
	4등 《줄재방울춤》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유미
	5등 《젊은 무희》	문예동도쿄지부 량성미
	6등 《복춤》	문예동도쿄지부 손흥미
중무부문	1등 《소고놀이》	문예동오사까지부
	2등 《회양빌리리》	문예동효고지부
	3등 《우리 장단이 좋아》	문예동도쿄지부
군무부문	1등 《봄꽃》	문예동효고지부
	2등 《행복의 북소리》	문예동오사까지부
	3등 《장고춤》	문예동효고지부

단체상		문예동효고지부
조정	오사까부분부상 나조 군무 《무녀춤》	문예동교토지부
녀성동맹	오사까부분부상 : 가조 군무 《아박춤》	문예동오사까지부
ブライダルショップ チョンヘ상	: 가조 독무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쿄지부 정진

제4차 성적 (독무) (2005년 12월 17일 나고야시모리야마문화소극장)

《가》 조	금상 《도라지》	문예동효고지부 문유미
	금상 《조개춤》	문예동오사까지부 현유희
	은상 《젊은 무희》	문예동도카이지부 황향순
	은상 《도라지》	문예동오사까지부 리려화
	은상 《무당춤》	문예동오사까지부 리화미
동상	《청춘의 기쁨》	문예동니시도쿄지부 정진
《나》 조	1등 《줄재방울춤》	문예동도카이지부 장영애
	2등 《장고춤》	문예동도쿄지부 리정화
	3등 《소고춤》	문예동오사까지부 조미려
	4등 《조개춤》	문예동오사까지부 김애리
	5등 《젊은 무희》	문예동도쿄지부 도영희
	6등 《장고춤》	문예동도쿄지부 리경화
6등	《소고춤》	문예동도카이지부 강미란

무용상식

《수건춤》

수건을 소도구로 하여 추는 춤을 말한다.

수건이 무용소도구로 된것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쓰인것과 관련된다. 수건은 예로부터 머리수건, 목수건, 손수건 등 여러 형태로 사람들의 생활에서 쓰이였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시기 여자들이 머리의 옷부분을 수건으로 덮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력사와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해져 지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다양화 되였다.

수건춤에서는 수건뿌리치기, 수건들어메기, 수건휘잡아뽑아올리기, 수건 가볍게날리기 등이 기본동작으로 되고 있다.

수건춤은 로동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룰동창조에 편리하고 간편한 수건을 리용함으로써 오래전부터 인민들속에서 널리 추어졌다.

수건은 우리 인민들의 로동생활과정에서 많이 쓰이였을뿐만아니라 기방무용들에서도 《살풀이춤》 같은데 소도구로 리용되였다. 땀한 한을 풀고 흥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흰 수건을 썼다.

무용에서 수건은 가볍고 부드러움을 주는 소도구의 하나로서 그것을 기본 무용소도구로 하는 수건춤은 우아하고 서정적이며 감미로운 정서적분위기를 자아냄으로서 정, 중, 동의 조선춤의 룰동적특징을 잘 표현해준다.

특히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붉은 수건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잘 보여준 무용이다. 이 무용에서는 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을 상징한 붉은

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우로 힘있게 뿌리거나 손끝을 튕기며 가볍게 날리는 등 다양한 손동작과 수건을 조화시켜 새로운 수건춤가락들을 풍부히 발전시켜놓았다. 오늘 수건이 무용소도구로서 여러가지 형태로 발전리용되는데 따라 수건춤동작들은 다양한 양상의 무용작품에 적극 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 무용작품에서 리용되는 수건으로서는 작은 수건, 크고 넓은 수건, 긴 수건의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형태들이 있으며 그 질감도 각이하다. 무용 《노들강변》에서는 부채와 함께 푸른색의 작은 수건을 소도구로 리용했다면 무용 《눈이 내린다》, 《삼색춤》과 같은 무용에서는 얇고 투명한 질감의 천으로 만든 붉은색, 흰색, 청색의 큰 수건을 가지고 작품의 심오한 사상적 내용을 상징적으로 형상하는데 리용되였다.

《수건춤기본》에서 쓰이는 수건의 종류

짧은 수건 ; 질감 - 문장직

너비 - 50센치정도

길이 - 1미터정도

색갈 - 연록색, 흰색등

긴 수건 ; 질감 - 문장직

너비 - 50센치정도

길이 - 1미터 50센치정도

색갈 - 붉은색, 혹은 흰색,

노란색

(자료제공 : 조선대학교 사범교육학부 부학부장 박정순)